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3년 7월 25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여성정책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팀장 최미나 ☎440-2691 • 담당자 구지영 ☎440-269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 마련 나선다

- 25일,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5일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천자모원,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양육의 문제를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에서 마련됐다.

인천시에서는 이미 긴급복지 지원, 청소년 부모 자립 지원, 미혼모 지원, 청소년 임신·출산 지원 등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아이돌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내 입양 연계 등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위기 임신부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참가자들은 위기 임신부의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청소년 임신부들이 망설임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위기 임신부들을 가까이에서 지원해 온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신부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간담회 사진]

